东亞太学報

창간 1948년 6월 15일 교시: 자유·진리·정의

동아내화냋

창간기념호

2020년 6월 15일 월요일

발행인 한석정/ 편집인 하승태 / 편집국장 박세현



대학언론의 가치 지켜온 동아대학보 72년

창간됐다. 당시 발행된 본지 제1호 창간사 는 우리 대학교의 학보 발간에 대해 "본 대 학의 장성이며 진보며 발달이 아니고 무엇 인가"라고 평가하는 대목이 나온다. 7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학보는 동아와 함께 장 성하며 진보하고 발달했다.

민주화가 실현되기 이전, 우리 대학 학생 들은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거리로 나가 권 력에 맞섰다. 학생들 곁에는 언제나 '역사의 반대 투쟁·1979년 부마 민주항쟁·1987년 6 월 민주항쟁 등 여러 학생 운동과 민주화 운 동을 치열하게 직필한 역사가 있다.

72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쌓이는 사이, 학 보가 전진하는 길은 비단길만이 아니었다. 역사의 격랑에 휩쓸려 본지는 탄압의 대상 이 되기도 했다. 그러나 학보 기자들은 굴복 하지 않고 '정론직필의 붓'을 놓지 않기 위 한 투쟁에 앞장섰다. 그 사례로, 1990년 학

는 학보가 특정 집단의 기관지가 될 수 없다 는 대학언론의 가치를 증명한 것이다.

시대는 변하기 마련이다. 학보 역시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했다. 민주화 성취 이후, 여성·청년·인권·지역사회 등 사회의 다양 한 문제를 조명하고 있다. 더불어 독자층의 유입이 수월하도록 무거운 주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의 시선을 쉽게 끌 수 있 는 주제를 다루기도 한다. 아울러 뉴미디어

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정론직필의 정신은 물론, 대학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고 비판과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등 대학언론 으로서 학보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. 또한, 변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한다.

박주현·김성주 기자, 김정은 인턴기자 <일러스트레이션=장하윤·임효원 기자,

정영림 인턴기자> ▷ 4면에 계속

지면소개

3면 >> 창간 72주년 기념 축사

4면 >> 동아대학보, 멈추지 않는 발걸음

5면 >> 한석정 총장에게 묻다

6면 >> 떠나는 한석정 총장의 발자취

7면 >> 청년예술가의 아픔을 아시나요

8 면 >> 집돌이·집순이의 진화 '홈루덴스족'

